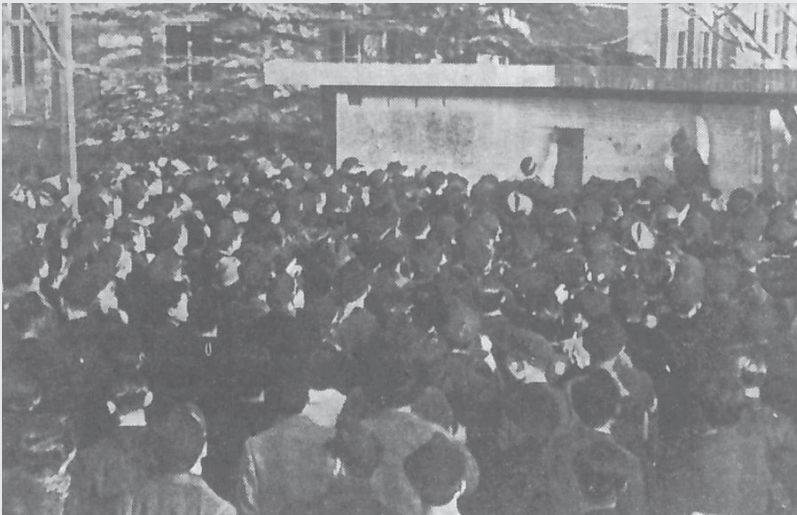


1/ 근대 일본 고등교육의 확대와 학력 위계의 형성*

최자명



帝国大学新聞 1938年 3月 21日, 2쪽. (不二出版 復刻版, 1984의 제12권 130쪽)

“흥분의 도가니: (도쿄제대) 경제학부합격자발표의 찰나”

최자명(崔子明)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사 및 석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근대 일본의 고등교육과 사회계급의 분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도쿄제국대학의 패권으로 본 근대 일본 능력주의의 역설」, 「엘리트층을 위한 복지」, 「계급장벽을 강화하기: 공업의 전문화와 근대 일본의 계층화」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2.26.16>

1. 서론

1945년 이전 세워진 일본의 대학들 중 그 전신교(前身校) 혹은 전신기관이 설립된 당초부터 법적으로 대학의 지위를 부여받았던 학교는 거의 없다. 1871년 문부성이 탄생한 이래 문부관료들이 1872년 학제(学制)를 제정하는 등 교육관계 법령을 만들었지만, 정작 대학에 관한 법령이 일본 땅에 처음 등장한 것은 제국대학령(帝国大学令)이 천황의 칙령으로 발포된 1886년의 일이었다. 그 기원이 도쿠가와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본 최고(最古) 대학인 도쿄대학 또한 문부성이 설립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제국대학령이라는 법령에 의해 대학의 지위를 인정받은 (도쿄)제국대학¹으로 거듭났다. 1871년에서 1886년 사이 도쿄제국대학의 전신교들[1871년의 대학동교(大学東校)와 대학남교(大学南校), 1873년의 개성학교(開成学校)와 도쿄의학교(東京医学校), 1877년의 도쿄대학] 중 대학이라고 칭한 경우가 있지만, 이 학교가 법적으로 대학의 지위를 인정받는 교육기관으로 올라선 것은 1886년의 일이었다. 다른 학교들도 애초에 중등학교나 전문학교 등 대학보다 낮은 수준의 학교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국가로부터 대학이라는 명칭과 학사학위를 수여할 권리를 부여받고, 법적으로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등교육 기관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비슷한 위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가장 먼저 대학의 지위로 올라간 도쿄제국대학의 후신교인 도쿄대학은 현재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여전히 일본에서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학교이지만, 역사가 짧은 대학들이나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는 재정적으로나 교육, 고용시장에서의 인기로 보나 역사가 오랜 대학들보다 못한 것이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교육기관들이 대학으로 승격되며 교육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

1 애초 이 학교가 설립되고 1897년 교토에 다른 제국대학이 설립되기 전까지 이 학교의 정식명칭은 제국대학이었고, 1897년부터 학교명이 도쿄제국대학으로 바뀌었다. 단, 이 변화는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 글에서 이 기관을 지칭할 때는 1897년 전이든 후든 도쿄제국대학, 혹은 도쿄제대로 지칭하겠다.

에게 돌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기관들 사이에 그 사회적 위상에 격차가 생겨나고 유지될까? 이 글은 승격을 통한 고등교육의 확대라는 일본의 경험에 주목하며, 대학과 대학 사이의 격차 및 4년제 대학과 그보다 교격이 아래인 학교들의 격차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유지되는지를 해명한다. 19세기 말 일본 학교제도의 설계자들은 이 학교에서 양성하는 국가의 근대화를 책임질 인재들의 채용자이기도 했다. 그들은 일본 최초의 대학인 (도쿄)제국대학의 졸업자에 상당한 직업적 특권을 부여하며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분야의 관료, 기업인, 교육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후발국 일본의 직업 사회는 고등교육과 직결된 높은 급여를 받는 정신노동자의 직업들과 고등교육과 연결되지 않는 낮은 급여의 육체노동자의 직업들로 대별되었다. 학교와 직업의 위계는 일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아닌 19세기 말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정해졌지만, 그에 따라 학교와 채용시장의 골격이 정해지며 교격과 노동형태의 격차에서 파생되는 수도와 지방의 격차, 남성과 여성의 격차, 국립과 사립학교의 격차, 그리고 선택된 직업과 선택받지 못한 직업의 격차가 일본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렸다. 그리고 후발학교의 교육자와 학생들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경계,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경계, 그리고 전문학교와 대학의 경계 위에서 더 높은 교격과 직업 전망을 위해 고등교육의 확대를 표방하는 정부의 손을 잡고 자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위계, 대학과 전문학교, 그리고 중등학교의 위계는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었다. 학교 승격은 그 교육자들과 학생들이 교격과 그와 연결된 직업의 위계를 승인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었지, 중등학교와 육체노동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다가, 지방학교, 여학교, 사립학교와 선택받지 못한 직업을 훈련시키는 학교들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과정은 아니었다. 또한, 후발 교육기관이 대학으로 승격한다고 해서 도쿄제국대학과 같은 사회적 위상을 누리지는 못했는데, 졸업생들의 네트워크, 입학생들의 성적, 교원의 질 등 여러 면에서 오래되고 인기 있는 대학을 후발대학이 따라잡기는 어려웠다. 이 과정을 추적한 최신 연구

들²을 골조로 삼아, 이 글은 문부관료와 교육자, 학생들이 이끄는 고등교육의 확대라는 역동적인 과정에서 학력의 위계가 뿌리내리고 계급장벽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해명한다.

1960~1970년대 미증유의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트로우(Martin Trow) 등 미국 교육사회학자들은 고등교육의 확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계층간 이동을 촉진해 더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트로우는 1974년 집필한 논문에서, “고등교육이 보편화하면 사회의 근본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사회 경제적 권리가 공동체의 더 많은 구성원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사회적 민주화”가 다시 “교육 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³ 트로우는 대학교육이 “개인이 자신의 계급에서 벗어나 중산층 직업에 진입하는 가장 일반적인 길”이라고 일갈했는데, 사회적 유동성이 그가 생각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핵심적 면모였던 것이다.⁴ 경제개발을 위해 고등교육을 확장해야 한다는 믿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매개로 국제사회의 공리가 되었고, 일본 등 각국 정부는 이 믿음을 기반으로 고등교육기관들을 꾸준히 증설했다.⁵

입시경쟁과 양극화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21세기 초반의 시점에서 되돌아봤을 때, 트로우의 예측은 빗나갔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

2 Jamyung Choi, “The Hegemony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and the Paradox of Meritocracy in Modern Jap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44(1), 2018; 최자명, 「근대일본 농업교육과 사회계급의 분화: 요코이 도키요시(横井時敬)의 동경농업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2호, 2018; Jamyung Choi, “Consolidating the Collar Line: The Professionalization of Engineering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Modern Japan,”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98, 2020.

3 Martin Trow, *Twentieth-Century Higher Education: Elite to Mass to Universal*,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0, p. 212. 이 글은 본래 다음과 같은 책에서 먼저 출판되었다. Martin Trow, “Class, Race, and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Reexamining Democracy: Essays in Honor of Seymour Martin Lipset*,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1992, pp. 138~156.

4 Martin Trow, *Twentieth-Century Higher Education: Elite to Mass to Universal*, pp. 130~131. 이 에세이의 원본은 “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라는 제목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의록으로 출판되었다. OECD, *General Report on the Conference on Future Structures of Post-Secondary Education*, Paris: OECD, 1974, pp. 55~101.

5 Alexander W. Wiseman & Calley Stevens Taylor, ed., *The Impact of the OECD on Education Worldwide*, Bingley, UK: Emerald Publishing, 2017.

다. 사실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어느 정도로 사회계층 간 이동을 촉진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과 프랑스 사회학자들로부터 통렬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교육 기회의 확대가 사회 전반적인 학력인플레이를 가져올 뿐, “교육받지 못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고학력자 아버지의 아들들보다 더 잘 교육받을” 가능성을 열어 주지 못하며, 존경받지 못하던 학교와 직업이 졸업생들과 유업자(有業者)의 시장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그 위상이 올라가더라도 애초에 위상이 높던 학교의 패권적 지위가 도전받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했다.⁶ 일본에서는 1990년대 경제 침체를 계기로 교육사회학자들이 계량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비슷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⁷

이 글은 기본적으로 위 사회학자들의 주장에 공명하지만, 입학자 통계와 설문조사에 입각한 계량사회학의 방법론을 채용하기보다는 관료, 교육자, 그리고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을 하나하나 늘려 가는 과정을 뜯어보으로써 교육과 직업의 위계,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계들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일본의 교육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개설적, 실증적인 연구를 광범위하게 축적했지만, 그중에 교육과 취직시장의 설계자이며 인재의 수요자인 정부의 자의에 의해 형성된 학력의 위계가 왜 고등교육기관의 대규모 승격에도 불구하고 온존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연구는 의외로 드물다.⁸ 이 글은 대학과 전문학

6 이 시기 고등교육의 팽창이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으로는 Murray Milner, Jr., *The Illusion of Equality: The Effect of Education on Opportunity, Equality and Social Conflict*,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lisher, 1972;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상·하, 새물결, 2005(원저는 1979년 출판). 인용구는 Murray Milner, Jr. *The Illusion of Equality: The Effect of Education on Opportunity, Equality and Social Conflict*, p. 43.

7 이 흐름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저작은 사토 도시키(佐藤俊樹), 이경희 옮김, 『불평등 사회, 일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4(원저는 2000년 출판); 橘木俊詔, 『日本の経済格差: 所得と資産から考える』, 岩波書店, 1998;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남기훈 옮김, 『격차사회』, 세움과비움, 2013(원저는 2006년 출판); 미우라 아쓰시, 이화성 옮김, 『하류사회: 새로운 계층집단의 출현』, 씨앗을뿌리는사람, 2006(원저는 2005년 출판).

8 근대 일본 고등교육사의 개설적 연구들은 상당히 층이 두텁다. 대표적인 저작들만 열거하면, 天野郁夫, 『学歴の社会史』, 新潮社, 1992; 天野郁夫, 『旧制専門学校論』, 玉川大学出版部, 1993; 天野郁夫, 『大学の誕生』, 상·하권, 中央公論新社, 2009; 天野郁夫, 『高等教育の時代』, 상·하권, 中央公論新社, 2013; 天野郁夫, 『新制大学の誕生』,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6; 天野郁夫, 『帝国大学: 近代日本のエリート育成装置』, 中央公論新社, 2017; 天野郁夫, 『新制大学の時代』,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9;

교, 고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의 격차가 어떻게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통해 구현되며, 전문학교와 중등교육기관들의 승격을 둘러싸고 그 위계가 어떻게 동요되고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육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조망하도록 하겠다.

2. 도쿄제국대학의 탄생과 학력 위계의 형성

화이트칼라 전문직 노동자를 만드는 것은 근대 일본 국가 건설과정에서 핵심적인 사업이었다. 1886년 일본의 학교제도를 완성한 모리 아리노리(森有礼) 문부대신은 일본의 고등학교와 도쿄제국대학을 고위 관료, 재계의 지도자, 그리고 학자, 등 사회 다수의 생각을 정해 주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상정했다.⁹ 도쿄제대는 법과대학, 의과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을 갖추고 1886년 출범하여, 이 분야에서 새로운 엘리트들을 배출했다. 1890년에는 고마바농학교(駒場農學校)가 제국대학 농과대학으로 승격, 편입되었다. 1904년에 공간된 교육의 효과에 대한 조사에서, 문부관료들은 국립학교 학생들이 310명의 국가관료제, 산업, 재계, 학교에서 높은 자리 중 213자리에 포진하여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표했다.¹⁰

어떠한 의미에서 (도쿄)제국대학 학생들의 약진은 당연한 결과였는데,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갖가지 직업적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먼저 법과대학의 졸업생들은 주임관(奏任官, 과장) 수준의 관료로 임용될 자격시험으로, 도쿄제국대학 창설 이듬해 실시되기 시작한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사법과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시험에 합격한

三好信浩, 『日本商業教育成立史の研究』, 風間書房, 1985; 三好信浩, 『日本商業教育發達史の研究』, 風間書房, 2012; 三好信浩, 『日本工業教育成立史の研究』, 風間書房, 1979; 三好信浩, 『日本工業教育發達史の研究』, 風間書房, 2005; 三好信浩, 『日本農業教育成立史の研究』, 風間書房, 2012; 三好信浩, 『日本農業教育發達史の研究』, 風間書房, 2012 등이 있다.

9 日下部三之介 編, 『文部大臣森子爵之教育意見』, 日下部三之介, 1888, 69~70쪽.

10 文部省, 『教育の效果に関する調査』, 文部省, 1904.

것으로 간주되어 의사자격증을 받고 개업할 수 있었다.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의 졸업생들은 중등학교 교원 면허증을 받아, 관료제로 치면 주임관 정도인 중학교와 사범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¹¹ 농학대학과 공과대학의 학생들은 정해진 규정은 없었지만 대체로 체신성과 농림성의 역시 주임관 급인 기사(技師)로 임용되거나, 사기업에 후한 대우를 받고 취직했다.¹²

도쿄제국대학이 성립한 1886년, 일본에는 제국대학보다 교격이 하나 낮은 고등교육기관들이 화이트칼라 전문직 사회에서 도쿄제대 졸업생보다 하나 아래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는 도쿄제대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이 있었고, 정부가 1886년 설치한 (도쿄)고등사범학교도 있었다. 의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도쿄제대 의과대학과 함께 1886년 고등중학교 다섯 곳에 대학예과와 함께 설치된 전문부(専門部) 의학부가 있었다. 대학예과와 달리, 고등중학교 전문부는 도쿄제국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고등중학교만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학생들을 위해 만든 속성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었다. 법률가, 행정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과 함께, 제3고등중학교의 전문부로 설치된 제3고등중학교 법학부뿐 아니라, 도쿄전문학교(현 와세다대학), 도쿄법학교(현 호세대학), 전수학교(현 센슈대학), 메이지법률학교(현, 메이지대학), 잉글랜드법률학교(현 주오대학) 등 수많은 사립 법률전문학교들이 있었다.

1886년의 규정으로 도쿄제대 학생들은 각종 시험 면제특권을 누렸지만, 다른 학교는 문부성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법학분야 사립전문학교의 예를 들면, 많은 학교의 졸업생들은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시험을 칠 권리만을 부여받았는데,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의 졸업생

11 상세는 Jamyung Choi, "The Hegemony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and the Paradox of Meritocracy in Modern Japan" 참조.

12 최자명, 「근대일본의 농업교육과 사회계급의 분화: 요코이 도키요시(横井時敬)의 동경농업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Jamyung Choi, "Consolidating the Collar Line: The Professionalization of Engineering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Modern Japan."

들은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도쿄)고등사범학교처럼 문부성 관료들이 설립시기부터 중등학교 교원면허증을 학생에게 졸업과 동시에 발급해 주었던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문학교 졸업생들은 기본적으로 전문학교 교육의 질이 도쿄제국대학만큼 좋다고 문부성 관료들에게 인정받아야 도쿄제국대학 졸업생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도쿄제국대학 법과, 문과, 이과, 의과대학처럼 화이트칼라 전문직을 지망하는 교격이 바로 하나 아래인 전문학교들 사이에 둘러싸인 경우도 있었지만, 농학대학과 공과대학은 교격이 두 단계 아래인 중등교육기관들을 옆에 두었다. 1890년 설립된 도쿄제대 농과대학에는 그 전신교인 고마바농학교 시절 설치된 농업의 육체노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시업과(試業科)에 연원을 두는 농과대학 을과(乙科)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도쿄제국대학 일람』에 의하면, 농과대학의 농학과, 임학과, 수의학과는 “실제 업무의 종사자(實業者)”의 양성을 위해 설치되었고, 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농과대학 본과에 비해 농장실습, 축산실습 등의 과목이 더 많았다.¹³ 또한, 화이트칼라 기술자를 양성하는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과 함께 지도급 직공의 양성을 목표로 설치된 도쿄직공학교(東京職工学校)가 1881년 설립되었다.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공과대학 학생들이 농상무성, 체신성에서 화이트칼라 기술관료로 활약하는 반면, 이들 두 학교의 졸업생들은 육체노동의 지도자로서 일본의 농업과 공업을 떠받치는 역할을 기대받았다.

이외에도 도쿄제대 공과대학 교수들이 주도로 창설한 농업과 공업의 사립중등학교들이 있었는데, 직공을 양성하기 위해 1887년 창설한 공수학교(工手学校, 현 공학원대학)와 1891년 창설한 도쿄농학교(현 도쿄농업대학)가 그것이었다. 수도의 학교로 살펴본 고등교육기관(대학과 전문학교들)과 중등학교들의 격차는 완벽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그 졸업생들이 맡아 주도록 기대된 노동 형태의 차이, 즉,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 그리고 그와 결부된 급여의 차이로 연결된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급여산정 방식

13 帝国大学, 『帝国大学一覽: 明治23-24年』, 帝国大学, 1891, 230쪽.

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정신노동자는 졸업한 학교의 교격으로 그 사람이 일을 시작할 직위와 받을 급여가 산정되지만, 육체노동자의 직위와 급여는 그 사람이 졸업한 학교의 교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기술적 숙련도와 시장가치로 결정되었다. 육체노동자도 시장가치가 높아지면 높은 급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정신노동자처럼 안정적으로 승진하고 높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¹⁴

학교 교격의 차이는 단순히 노동 형태와 급여의 격차뿐 아니라, 수도와 지방의 격차, 남성과 여성의 격차, 국립과 사립의 격차, 그리고 직업과 직업 사이의 격차로 연결되기도 했다. 1886년 단 하나뿐인 제국대학이 도쿄에 있었으니, 일본에서 대학은 수도에만 있었다. 그리고 국립 고등전문학교, 고등사범학교들도 모두 도쿄에 처음 생기고 그 복제기관이 선택된 지방에 들어서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예를 들어, 제국대학과 같은 해 설립된 (도쿄) 고등사범학교는 역시 도쿄에만 있었는데, 나중에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가 생겨 급증하는 중등학교의 교원을 공급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은 부현 단위에서 최소 한 개씩은 갖게 되었으므로, 수도의 희소한 고등교육기관과 그곳에 진학하기 위해 전국에서 인재를 끌어 모으는 중간 단계로서의 현립 중등교육기관이라는 지리적인 위계가 형성되었다. 1890년대 말엽까지 현립 중등농업학교들도 현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과 지방의 중등농업학교라는 지리적 위계가 생겨났다. 농업전문가라는 정신노동자와 경작지주라는 육체노동자의 위계와 교격의 위계는 곧 수도와 지방이라는 지리적 위계이기도 했던 것이다.

도쿄제국대학은 국립대학이었고, 1918년 대학령이 발포되기 이전 사립 학교는 법적으로 대학의 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으니, 도쿄제국대학의 성립은 곧 국립과 사립의 격차가 탄생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 격차는 국립 대학이라는 지위에서 발원하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전국에 그 예과로 기능

14 1945년 이전 일본 육체노동자들의 급여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Andrew Gordon, *The Evolution of Labor Relations in Japan: Heavy Industry, 1853-1955*, Cambridg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85 참조.

하는 다섯 곳의 고등중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지원자들 덕분에 교수와 학생의 질, 교원의 봉급, 학생이 내야 하는 수업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추가적으로 격차를 발생시켰다. 특히 이것은 사립학교가 비교적 많았던 법률학교들에게서 두드러지는데, 이 학교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는 관계로 오로지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지했기 때문에 학생의 숫자가 많았다. 도쿄전문학교에 취직했던 다카타 사나에(高田早苗)는 일주일에 30시간씩 가르치며 월 30엔을 받았는데, 덕분에 근무를 시작한 1882년부터 1888년까지 “새 옷을 한 벌도 살 수 없었다”.¹⁵ 때문에 사립대는 교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학에서 가르치다 물러났거나 은퇴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규슈 북부에 야하타(八幡)제철소가 들어서며 수요가 급증한 기술자를 공급하기 위해 규슈의 대기업가 야스카와 게이이치로(安川敬一郎)는 사립공업전문학교인 메이지전문학교(明治専門学校)를 세우면서, 러일전쟁 이후 정부를 비판했다가 도쿄제대 총장 자리를 떠나게 된 야마카와 겐지로(山川健次郎)를 초대 학장으로 데려왔다. 도쿄농학교, 공수학교, 메이지전문학교 등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초창기 도쿄제국대학 교수를 데려와 기틀을 다졌다.

도쿄제국대학이 1890년 6개 단과대학을 갖추며 최상층부 엘리트를 배출하게 되자, 도쿄제대에서 훈련받는 엘리트들의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사이의 위계 또한 생겨났다. 아직까지 기업이 많지 않았던 시절인 1886년 창립된 도쿄제국대학에는 상점 직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경제학 수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법과대학의 재정학(財政学)과 이재학(理財学) 수업뿐이었고, 아직까지 이들이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1886년 당시 상점 직원을 양성하는 기관은 1883년 창설된 상법전습소(商法伝習所)에 연원을 두는 도쿄상업학교가 있었다. 상법전습소는 모리 아리노리가 설립을 주창하고 도쿄상공회의소 사람들이 관여하여 창설 및 운영한 학교로서, 13세 이상의 소학교 졸업생들을 모집하여 상법, 부기, 외국어를 가

15 早稲田大学 編, 『半世紀の早稲田』, 早稲田大学出版部, 1932, 65~66쪽.

르치고 상점, 상사에서 실습을 시켰다.¹⁶ 곧 도쿄부로, 농상무성으로 이관되었다가 1885년 문부성으로 이관되며, 도쿄상업학교는 학교를 3년의 심상과와 2년의 고등과로 편제, 고등과라는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를 갖추었다. 1886년 이 학교의 규칙에 의하면, 교과과정 중에 경제(經濟)라는 과목이 보이며, 학생들은 이 과목과 함께 습자, 부기를 익히고, 상점에서의 실무 연습을 하며 이 학교의 설립 목표인 “공사(公私)의 상무(商務)를 처리 경영하는 사람”이나 “상업학교의 선생”이 되도록 준비했다.¹⁷ 그러나 이 학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할 권리가 없었고, 다른 말로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학사 학위를 받을 길이 없었다.

상업뿐 아니라 수산업도 도쿄제국대학의 교육에서 소외되었으며, 소외의 정도는 더 심했다. 1890년 도쿄제국대학에 편입된 농과대학 본과에는 농학과, 임학과, 수의학과가 있었을 뿐 수산학과는 없었고, 수산학 프로그램은 육체노동을 할 실무자를 양성하는 을과에 설치된 수산과가 있었다. 이 수산과는 고마바농학교가 전문학교로 승격되며 1886년 창설된 도쿄농림학교의 수산과간이과(水産科簡易科)를 이은 것이다. 바꿔 말하면, 1870년대부터 농업교육기관이 창설되었던 데 반해, 어업의 교육기관 자체가 1886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곧, 많은 직업이 도쿄제국대학의 엘리트 교육에서 소외되며 직업적 위상이 낮아졌고, 그 소외된 정도는 각각 달라 소외된 직업들 사이에서도 다시 위계가 만들어졌다. 도쿄제국대학에 수산학이 뿌리 내리는 과정은 농학에 비해 훨씬 힘들었는데,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을과 수산과는 아마도 농상무성의 수산행정의 담당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모양으로, 1886년 수산과간이과 제1회 입학생만을 받은 뒤 더 이상 학생을 모집하지 않았고, 이들이 졸업한 직후인 1891년 폐지되었다.¹⁸ 농과대학에 수산학과가 설치되며 수산학 전공자가 대학 학위를 받게 된 것은 1910년의 일이었다. 오히려 수산학은 문부성이 관할하는 학

16 小田勝太郎 編, 『東京諸学校学則一覽』, 英蘭堂, 1883, 419~422쪽.

17 東京商業学校, 『東京商業学校規則』, 東京商業学校, 1886, 1~2쪽.

18 佐々木貴文, 『近代日本の水産教育: 「国境」に立つ漁業者の養成』, 札幌: 北海道大学出版会, 2018, 7쪽.

교제도 외부에서 전문가를 양성했는데, 어업의 기술개발과 보급 및 어민들의 계몽을 목표로 창설된 대일본수산회(大日本水産會)가 수산강습소(水産講習所)를 세운 것이 1887년이며, 이 학교가 농상무성으로 이관하여 국립학교가 된 것이 1893년, 어로, 제조, 양식의 3개 과를 갖춘 고등전문학교로 승격된 것은 1897년이었다.¹⁹

소학교에서 심상중학교, 고등중학교, 제국대학으로 이어지는 학교체계에서 여성은 환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대학의 학사학위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1886년의 시점에서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소학교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1872년 도쿄사범학교를, 1874년 도쿄여자사범학교를 설립했는데, 1886년 중등교육기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도의 사범학교 두 곳을 (도쿄)고등사범학교로 승격시키며 도쿄여자사범학교는 도쿄고등사범학교 여자부(후일,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지금의 오차노미즈여자대학)가 되었다.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졸업 후 5년간 중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²⁰ 당시까지 여성들의 직업적 훈련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중등여교원을 훈련시키는 이 학교뿐이었다. 곧, 이 시점에서 고등교육상 남성과 여성의 교육격차는 학사학위 취득의 가능 여부, 고등교육을 받고 진출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폭으로 표현되었다. 의학과 법학으로 여성의 고등교육기회가 확장되는 조짐은 1886년까지 보이지 않았다.

물론, 여성들의 직업교육이 교사교육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보모와 간호사 등의 직업이 1880년대 말엽까지 여성들에게 개방되었다. 도쿄여자사범학교의 운영자들은 1878년 6월 보모연습과를 설치하여 “읽고 계산할 줄 아는”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을 입학시켜, 1년간 교수법, 과학, 그림, 음악, 체조, 윤리 등을 가르쳤다. 이 프로그램의 수업장은 도쿄여자사범학교의 부속유치원이었고, 학생들은 그 유치원생들을 돌보며 보모연습

19 水産講習所, 『水産講習所一覽: 自大正二年至大正三年』, 農林省水産講習所, 1914, 1쪽. 이 학교가 고등전문학교로 승격되며, 몇몇 현에 설립된 현립 중등수산학교와의 사이에 교격의 차이가 생겨났다.

20 東京女子高等師範学校, 『東京女子高等師範学校六十年史』, 東京女子高等師範学校, 1934, 55쪽.

을 진행했다.²¹ 또한,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의 운영자들은 1887년 간병부강습과(看病婦講習科)를 만들어 간호사의 훈련에 돌입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연령이 20세에서 35세 사이여야 했고, 문자를 읽을 수 있어야 했으며, 이름과 주소, 미혼, 기혼, 과부인지의 여부, 건강, 병원 규칙의 이해 등을 묻는 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1891년 개정된 「간병부강습규칙」에서 이 프로그램의 입학자격을 “23세 이상 35세 이하의 여성으로 지아비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이 프로그램의 설계자들은 간호사 업무와 결혼생활을 병행할 수 없도록 설정했는데, 이는 1945년 이전에 운영된 간호학교들의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²² 이는 당시 여성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 즉 중등학교 여교원의 근무 환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정이었다.

육아와 간호의 육체노동 부문의 훈련은 교사와 의사를 훈련시키는 도쿄여자사범학교와 도쿄제국대학 의과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분리된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었고, 그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한 학력 조건은 전무했다. 다른 여성의 직업들, 예를 들어, 간호사나 보모와 같은 직업은 양성학교가 간이부설학교였고, 이 직업에 충분한 위신을 실어 주지 못했다. 이는 소학교 졸업을 전제한 중등실업학교였던 도쿄직공학교나 도쿄농학교보다도 교격이 더 낮은, 육체노동 부문 여성 교육기관들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들 부문, 특히 의료업계에서는 대학과 교격이 그보다 못한 학교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라는 위계에 남성과 여성의 성별 위계가 덧씌워지기도 했다. 도쿄제국대학 의과대학 졸업자인 의사는 국립대학 출신 남성 고학력 정신노동자인 데 반해, 여성은 간이학교의 신세를 쉽게 면하지 못했던 간호학교 졸업자이며, 병원에서 의사의 보조역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저학력 노동자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게다가 이들 학교는 졸업생들이 대체로 결

21 東京女子高等師範学校, 『東京女子高等師範学校六十年史』, 38~40쪽.

22 東京大学医学部附属病院看護部看護史委員会 編, 『看護のあゆみ: 明治・大正・昭和を通して』, 東京大学医学部附属病院看護部, 1991, 15쪽, 25쪽; 看護史研究会 編, 『派出看護婦の歴史』, 東京: 勁草書房, 1983.

혼과 함께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인지, 1880년대 세워진 다른 육체노동 부문 교육기관들의 경험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창회 구성원들이 모교의 승격을 요구하는 일도 드물었다.

이렇게 해서, 학력의 위계는 1886년을 전후하여 학사학위에 부여되는 직업적 특권을 매개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위계로, 교육받는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의 위계로, 수도에 위치한 대학과 지방에 위치한 다른 학교들이라는 지리적 위계로, 또한 교육기관의 입학조건과 선택의 폭이라는 차원에서의 성별 위계로 자리 잡았다. 최상층부에 있는 도쿄제대 교육자와 졸업생들이 아닌 다음에야 이 위계에서 열위에 있던 다른 학교의 교육자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지위에 완전히 만족하기란 어려웠다. 게다가, 초창기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들과 몇몇 중등교육기관의 졸업자들은 해당 분야의 희소한 자원이었고, 일본의 관료제와 재계의 덩치가 불어나며 당초 설계된 것보다 더 좋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곧, 이들은 학사학위가 없는 자신들에 대한 차별대우에 분개하고 대학과 고등교육의 확대를 추진하던 문부관료들과 손잡고 자교의 승격을 위해 운동을 벌이며, 도쿄제국대학 졸업생들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했다.

3. 고등교육의 확대와 격차의 재조정

일본 전국에서 대학이 단 하나인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다. 도쿄제대가 설립된 이후 일본의 정치가들은 제국대학의 복제기관을 다른 지역에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1890년 개원한 중의원은 이러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창구였는데, 1891년과 1892년, 중의원 의원인 자유당의 하세가와 야스시(長谷川泰)는 경쟁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문의 진보가 더디다는 점을 거론하며 간사이(關西)에 제국대학을 추가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²³ 하세가와의 요구는 당시

23 京都大学百年史編集委員会 編, 『京都大学百年史』総説編 第1巻, 京都: 京都大学後援会, 1998, 108쪽.

에는 재정적 압박으로 실현될 수 없었지만, 청일전쟁의 승리로 거액의 배상금이 들어오자 정부는 1897년 교토제국대학을 설립했다.²⁴ 이후 1945년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 제국의 판도 안에 도쿄제국대학과 교격과 졸업생의 특권을 공유하는 9개의 제국대학을 설립했다.

1920년대에는 몇몇 전문학교들이 대학으로 승격하며, 제국대학과 전문학교의 교격 격차도 완화되었다. 1차대전의 호황을 등에 업고 출범한 하라다카시(原敬) 내각(1918~1921)의 각료들은 고등교육의 확장을 주요 정강의 하나로 상정했고, 대학령(大学令)을 발표하여(1918) 제국대학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들이 대학으로 승격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유서 깊은 국립과 사립의 전문학교들을 대학으로 승격시켰다.²⁵ 1920년, 와세다와 게이오의숙(慶應義塾) 등 유서 깊은 사립전문학교들과 도쿄고등상업학교 등 국립 고등전문학교들이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18년부터 31년 사이 대학의 숫자가 5개에서 47개로 늘어났다. 또한, 전문학교들도 문부성의 승인을 받아 도쿄제대생에게 주어지는 직업적 특권, 예를 들어 중등학교 교원면허증을 받았다. 또한, 후발제국대학들 중 고등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대학은 고등사범학교와 전문학교 졸업생들로 빈자리를 채웠는데, 덕분에 여자고등사범학교 학생들도 일본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도호쿠제국대학(東北帝国大学)은 여학생을 받은 최초의 제국대학이었다. 1920년대 중반 제국대학이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 생겨나며, 식민지에 사는 일본인과 식민지 본토인들에게도 고등교육의 문호가 열렸다.

이렇게 다양한 학교의 졸업생들이 특권을 나눠 갖게 되는 과정은 동급의 학교 졸업생들이 한정된 일자리와 이권을 놓고 벌이는 당시 용어로 흔히 학벌(學閥) 다툼으로 불리던 새로운 형태의 경쟁을 수반했다. 『아사히신문』의 검색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단어의 가장 오래된 용례는 1899년 관료 사회에서 제국대학 출신자가 그들의 후배에게 직업적 기회를 부당하

24 京都大学百年史編集委員会 編, 『京都大学百年史』総説編 第1巻, 112쪽.

25 이 과정에 대해서는 伊藤彰浩, 『戦間期日本の高等教育』, 玉川大学出版部, 1999 참조.

게 몰아주며 사립전문학교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의 그것이다.²⁶ 이 기사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1890년대 제국대학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 만한 학교들은 사립법률학교들이었다. 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는 것만으로 고등문관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학생들의 특권은 1893년 법이 개정되며 부분적으로 축소되었다. 1894년부터 실시된 고등문관시험에는 기존 행정과, 사법과에 더해 외교과가 추가되었는데, 이 외교과 시험에 대해서는 수험생 모두가 예비 시험을 보도록 설계되어 도쿄제대생이 가져가는 눈에 띄는 특권은 없었다. 그리고 행정과 시험은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나뉘었는데, 제국대학 법과대학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예비시험은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시험만 보면 되었고,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는 예비시험을 볼 권리만을 보장했다. 반면, 사법성이 주관하는 사법과, 변호사 시험은 계속 제국대학과생들의 본시험이 면제되었다.

사법성 관료들은 1903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변호사시험, 판점사등용시험)의 시험날짜를 같은 날로 정해 버려 둘 중에 하나라도 불기를 바라며 두 시험 모두 응시하는 사립법률학교 학생들을 좌절시키는 등 사립법률학교 학생들이 도쿄제대생에 비해 차별받는다느 느낌을 받을 만한 일들은 충분히 일어났다.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특권을 철폐하라는 사립전문학교 학생들과 교육자들의 목소리는, 행정과, 사법과의 차별대우를 완전히 철폐하는 법이 통과되고 실제로 그에 입각한 시험이 1923년도 실시되기까지 계속되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제국대학 학생들의 강제는 특권의 축소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행정과 합격자를 살펴보면 도쿄제대 졸업생들이 본시험 면제 특권을 잃어버린 1894년에서 최후의 시험이 행해진 1947년 사이 5,969명의 도쿄제대 졸업생들이 고등문관시험 행정

26 「帝国大学の学閥」, 『東京朝日新聞』, 1899년 6월 7일, 7쪽.

27 상세는 Robert M. Spaulding, *Imperial Japan's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의 10장에서 13장 참조.

과에 합격했는데, 이는 전체 합격자의 2/3 정도다.²⁸

발흥하는 일본의 대기업에서도 도쿄제대 졸업생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문부성의 『교육의 효과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1902년까지 116명의 도쿄제대 졸업생이 기업체에 취직했고,²⁹ 1915년까지 도쿄제대 총 졸업생 중 1,077명이 재계에 취직했는데, 이는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과 거의 비슷한 숫자이다.³⁰ 이후 도쿄제대 학생들 숫자가 늘어나고 고등문관시험 경쟁률이 높아지자, 더 많은 학생이 기업체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또한, 초창기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직도 도쿄제대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도쿄제국대학 이후 설립된 여덟 개의 제국대학의 첫 총장부터 1945년까지의 총장은 모두 도쿄제대 출신이다. 1899년부터 1926년 사이에 임용된 조교수와 1899년부터 1945년까지 임용된 정교수의 70% 이상이 도쿄제대 출신이었다.³¹ 그리고 도쿄제대 교수들은 사립학교의 기틀을 다지는 데 불가결한 재원이었는데, 요코이 도키요시(横井時敬) 도쿄제대 농과대학 교수는 중등학교인 도쿄농학교의 교장을 맡으며 이 학교를 고등전문학교인 도쿄고등농학교, 대학인 도쿄농업대학으로 승격시켰다. 도쿄의 사립법률학교들이 전문학교 인가를 받고 대학으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이 학교를 이끈 것도, 대학이 된 뒤에 총장의 직을 수행한 것도 대체로 도쿄제대 졸업생들이었다.³²

후발 학교의 졸업생들 역시 자체 결속을 도모하며 도쿄제대 졸업생들의 위상에 도전했다. 후발학교의 졸업생들은 명확하게 공표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동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의심받던 도쿄제대 졸업생들의 부당한 결속을 비난했는데, 학벌(學閥)이란 이들이 도쿄제대 졸업생들을 비난하며 던진 수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후발학교의 졸업생들은 자교의 동문회조직을 강화하며 사회 최상층부를 장악한 도쿄제대 졸업생

28 秦郁彦, 『官僚の研究』, 講談社, 1983, 17쪽.

29 文部省, 『教育の效果に関する調査』, 88쪽.

30 天野郁夫, 『大学の誕生』 下巻, 中央公論社, 2009, 284~286쪽.

31 岩田弘三, 『近代日本の大学教授職』, 玉川大学出版部, 2011, 33~35쪽, 62~63쪽.

32 岩田弘三, 『近代日本の大学教授職』, 220쪽.

들에게 도전했는데, 이렇게 되자 이 경쟁을 누가 주도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해졌다.

도쿄고등상업학교가 도쿄상업대학으로 승격하는 과정은 후발학교 동문조직이 어떻게 강화되는가를 잘 보여 준다. 근대 일본 경제가 성장하며 대기업이 늘어나자, 본래 상점 직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도쿄고등상업학교의 졸업생들은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도쿄고등상업학교 출신으로 미쓰비시 은행을 거쳐 일본우선(日本郵船)주식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하던 야마모토 구니노스케(山本邦之助)가 1903년 일갈했듯이, 상업의 증대되는 중요성 덕분에 도쿄고등상업학교 출신들은 “점원 복인 앞치마(前垂)를 벗고 양복을 입”는 회사원이 되었던 것이다.³³ 그리고 이 학교의 선생들도 자신들의 학문을 단순히 손님을 맞는 기술보다는 경제학을 공부하며 자교의 교격을 대학으로 높이고자 했다.

1901년 도쿄고등상업학교 교수들이 독일의 상업대학에서 영감을 얻어 도쿄고등상업학교를 상업대학으로 승격할 것을 요구하고³⁴ 학교당국과 동문회가 이를 받아들여 의회에 운동을 한 끝에, 1907년 의회는 상업대학을 설립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³⁵ 그런데 도쿄제대 출신이 주류였던 문부관료들은 도쿄고등상업학교 동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도쿄제대에 경제학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해 버렸다. 도쿄고등상업학교 교장은 도쿄제대 출신이었는데, 문부성의 결정을 지지했다. 도쿄고등상업학교의 동문회는 도쿄제대생들의 보이지는 않는 연결고리를 의심했고, 분노했다. 도쿄고등상업학교를 1875년 상법전습소(商法伝習所)라는 형태로 처음 진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재계 거물 시부사와 에이치(渋沢栄一)는 도쿄제대 동문들이 가장 큰 “학벌”, 즉, “특정 학교 졸업생들의 파당적 권력”을 형성했다고

33 山本邦之助, 『理想的会社員』, 服部書店, 1903, 1쪽.

34 이 과정에 대한 상세는 三好信浩, 『日本商業教育成立史の研究』, 風間書房, 1985; 三好信浩, 『日本商業教育発達史の研究』, 風間書房, 2012.

35 一橋学園史編纂事業委員会 編, 『如水会の歩み』, 如水会, 1982, 44쪽; 作道好男 編, 『一橋大学百年史』, 財界評論新社, 1975, 326~360쪽.

비판한 뒤, 도쿄제대가 일본 사회에 비상한 기여를 한 것은 맞지만 “배움은 하나의 기관에 독점되면 안 되며”, 유서 깊은 학교들인 도쿄제대, 와세다, 게이오, 도쿄고등상업학교의 동문들은 “의식적으로 벌을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³⁶

그런데 도쿄고등상업학교 동문들은 그 과정에서 동문회 조직을 출범시켰다. 도쿄고등상업학교의 교육자들은 대학승격을 주장하면서 1909년 동문회 집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1914년에는 시부사와가 여수회(如水會)라고 이름을 붙여 준 공식적인 동문회조직을 출범시켰다. 그 해 처음으로 경제학자 사노 겐사쿠(佐野善作)가 모교 출신으로 도쿄고등상업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이 조치는 만약 문부관료들이 후배인 교장을 움직여 도쿄고등상업학교의 승격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사노의 재임기인 1920년, 도쿄고등상업학교는 도쿄상업대학(東京商業大學)으로 승격되었다.³⁷

1차대전 이후 일본 정부는 고등교육의 확장을 추구했는데, 도쿄제대생들보다 열위에 있던 많은 고등전문학교, 고등사범학교 출신 학생들이 동문결집을 통해 모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켰다. 여기에서 거론한 학교 중에는 도쿄고등사범학교, 도쿄고등공업학교(도쿄직공학교), 도쿄고등농업학교(도쿄농학교), 와세다 등 사립법률학교들과 게이오의숙 등이 대학이 되었다. 그리고 도쿄제대와 같은 대학으로 모교를 승격시킨 몇몇 후발학교 당국은 도쿄제대 출신으로 구성된 초창기의 교수진을 모교 출신으로 교체하고자 했다. 교토제국대학은 1934년이 되면 의학부교수의 과반수가 교토제대 자교출신자였다.³⁸ 사립대는 초창기 교수진을 도쿄제대에서 데려오기는 했지만 역시 모교출신으로 교수진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1962년경 도쿄대학, 교토대학, 와세다, 게이오의 교수진 80~90%가 모교 출신이었다.³⁹

36 渋沢栄一, 「学閥論」, 『竜門雜誌』, 353号, 1917, 75~81쪽. Jamyung Choi, “The Hegemony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and the Paradox of Meritocracy in Modern Japan”, 103~104쪽에서 재인용.

37 一橋学園史編纂委員会, 『如水会の歩み』, 30~80쪽.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Jamyung Choi, “The Hegemony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and the Paradox of Meritocracy in Modern Japan”을 참조할 것.

38 帝国大学新聞社 編, 『帝国大学年鑑』, 帝国大学新聞社, 1934, 284~285쪽.

39 新堀通也, 『日本の大学教授市場: 学閥の研究』, 東洋館出版社, 1965, 62쪽.

이렇다 보니, 학벌이라는 단어에 실려 있던 부정적인 함의 자체가 희석되어 갔다. 학생들의 수험 잡지 지면에서 학벌이라는 말은 비난의 수사가 아니라 학교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었다. 예를 들어, 『수험과 학생』이라는 잡지의 어느 필자는 1941년 모교 도쿄상업대학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동문의 결속력을 강조하면서 모교에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히토쓰바시벌(一橋閥)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히토쓰바시벌”은 “동창들의 모교에 대한 비상한 헌신 덕분에 관계(官界), 학계(學界), 재계(財界)에 군림하는 일대 세력”으로 거듭났다고 강조했다.⁴⁰ 이 저자에게 강고한 학벌이란 추문이 아니라 중학교 졸업자들에게 모교를 홍보할 장점이었던 것인데, 학벌의 타파를 외치는 목소리가 그 후에도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벌은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삶의 현실이 되어 갔던 것이다.⁴¹

그런데 이 후발학교와 도쿄제대의 경쟁을 통해 후발학교가 도쿄제대보다 우월한 평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일단 정부가 직업적 특권을 재분배할 때도 기준은 후발학교가 도쿄제대와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왔는가였고, 1907년경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도쿄제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을 내면화한 듯 성적 우수자가 도쿄제대에 지원했다.⁴²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어느 학생에 대한 평가는 그 학생이 가진 기술보다는 도쿄제대라는 학교의 이름값을 기준으로 출신 학교의 수준을 가늠하는 데 그쳤고, 출신학교에 입각한 차별을 철폐한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개혁은 특정한 후발학교 학생들에 도쿄제대생의 특권을 나눠 주는 형태로 나타났다.

1920년대 초반 미쓰비시 경영진이 단행한 급여 개혁은 도쿄제대와 후발학교 졸업생들의 경쟁이 어떠한 형태로 결착하는가를 잘 보여 준다. 1920년대 중반까지, 도쿄제대, 도쿄상업대학, 사립대학들은 급여에 차이가

40 「一橋閥の主流三位一体の学園」, 『受験と学生』, 25卷 5号, 1941, 118~121쪽. 필자의 개인소장.

41 安藤正純, 「大学改革の志向 5」, 『東京朝日新聞』, 1943년 5월 15일, 1쪽; 梶田隆治, 『学園: 日本を支配する赤門』, 有紀書房, 1957.

42 이 과정에 대한 분석은 潮木守一, 『京都帝国大学の挑戦』; Jamyung Choi, “The Hegemony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and the Paradox of Meritocracy in Modern Japan.”

있었다. 1923년경, 제국대학 공학부 졸업생은 월 100엔을 받았으며, 제국대학의 타 학부 졸업생은 월 80엔, 도쿄상업대학과 도쿄고등공업학교는 70엔,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과 게이오기주쿠(慶応義塾)대학의 졸업생은 65엔, 메이지대학(明治大学), 주오대학(中央大学),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学)의 졸업생들은 55엔을 받았다. 그런데 1920년대 중반 몇몇 회사는 이 급여차별을 없앴다. 1926년 미쓰비시 회사들은 제국대학, 도쿄상업대학, 고베고등상업학교, 와세다, 게이오 졸업생들의 월급을 75엔으로 통일했다.⁴³ 이 조치로 모두가 같은 월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메이지대학 등 와세다나 게이오보다 하나 아래였다고 생각되던 학교들의 졸업생들은 모교가 대학으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에서 월 65엔을 받았다. 곧, 이 조치에 입각한 차별 철폐란 현존하는 학교 서열을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도쿄제국대학의 패권적 지위가 선점 우위 효과 말고 정확히 무엇인지 질문받지 않은 채 유지되며, 정작 그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며 학생들이 어떠한 기술을 배우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 과정에서도 도외시되었다.⁴⁴ 그리고 학벌과 직업의 위계가 갖는 자의적 성격 또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전간기(戰間期) 도쿄제대와 선택받은 전문학교들 사이의 학력 격차가 졸업생 그룹들의 각축을 통해 대학승격과 급여협상으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으로 승격된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 도쿄와 히로시마의 남성 고등사범학교들, 즉, 도쿄고등사범학교와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는 각각 도쿄문리과대학, 히로시마문리과대학으로 승격되어, 1929년 간판이 대학으로 바뀌었다. 반면, 도쿄와 나라의 여성고등사범학교들, 즉,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와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는 1945년까지 대학으로

43 「実質的に愈々認められた私立大学出の学士」, 『受験と学生』 第6巻 7号, 1923, 12~19쪽; SMU 社員待遇調査会 編, 『諸会社事務掌程社員待遇規定集』, 社員待遇調査会, 1926, 121쪽; 河田蜂郎, 『会社員給与調べ』, 東京経済社, 1925, 3~4쪽. 물론, 모든 회사가 이 학력에 따른 급여상 차별을 철폐한 것은 아니었다. 스미토모는 사립대학 졸업생들이면 어느 대학을 나왔든 도쿄제대생보다 낮은 급여를 주었다.

44 이 부분에서 인용하는 학벌의 개념사적 접근법과 급여 격차의 조정과정에 대한 분석은 Jamyung Choi, "The Hegemony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and the Paradox of Meritocracy in Modern Japan"을 참조.

승격되지 못했다. 여성들의 도쿄직공학교는 1900년대 초반 도쿄고등공업 학교라는 고등전문학교로 승격한 뒤 1920년대 도쿄공업대학이라는 대학으로 승격되었지만, 공수학교는 1944년에야 고등전문학교인 공학원공업전문 학교로 승격되었고, 대학이 된 것은 전후의 일이다. 승격의 속도는 수도와 지방에서 차이가 있었다. 공업전문학교 중 수도에 있던 도쿄고등공업학교가 가장 먼저 대학이 되었고, 메이지전문학교가 규슈공업대학(九州工業大学)으로 승격된 것은 전후의 일이다. 도쿄수산강습소는 역시 전후에야 도쿄수산대학(東京水産大学, 현 도쿄해양대학)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 사이의 학력 격차나 그와 결부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격차가 중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도쿄직공학교의 경험은 어떻게 학교승격과 고등교육의 확장이 중등교육기관이 대변한 육체노동의 위상 상승을 동반하지 않는지 잘 알려 준다.⁴⁵ 공부성(工部省) 관료들이 화이트칼라 기술관료의 양성을 위해 설립한 것이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으로 이어지는 공부대학교였으며, 육체노동자의 지도급인 직공장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가 도쿄직공학교였다. 그런데 막상 급여나 사회적 위상 면에서 직공이 되는 것에 큰 매력이 없자, 1880년대 말 도쿄직공학교 학생들은 교장인 데지마 세이이치(手島精一)에게 학교 이름에서 직공을 뺄 것을 제안했고, 데지마가 이를 받아들여 이 학교의 이름은 1890년 도쿄공업학교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직공보다는 화이트칼라 기술자, 관료, 교사를 지망했다. 이에 도쿄고등공업 교육자들은 교과과정에서 공장실습의 비중을 낮추고, 자교의 교격을 올리는 운동에 돌입하여, 1901년에는 이 학교를 도쿄고등공업학교로, 1929년에는 도쿄공업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데 성공했다. 도쿄직공학교 동문들이 모교를 고등전문학교로 승격시키는 과정은 육체노동을 회피하고 싶어하거나 이미 회피하는 데 성공한 도쿄직공학교 졸업생

45 이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Jamyung Choi, "Consolidating the Collar Line: The Professionalization of Engineering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Modern Japan"을 참조.

들의 행로를 반영한다. 그리고 도쿄고등공업학교 졸업생들은 도쿄제대 공과대학(1918년부터 공학부) 졸업생들에 눌러 판임관인 기수(技手)에서 주임관인 기사(技師) 직위로 승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이번에는 대학승격을 주장했다. 말하자면, 도쿄직공학교가 도쿄공업대학으로 승격되는 원동력 중 하나가 이 학교 학생들의 차별에 대한 반발심리였던 셈인데, 이 학생들이 차별을 벗어나는 방식은 단지 자신들의 학교 교격을 높이는 것이었지 육체노동에 대한 편견과 학력 위계를 해체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도쿄직공학교의 승격은 이 학교가 1880년대 도쿄제대 공과대학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생긴 공업학교였다는 사실에 힘입은 바가 큰데, 곧 승격의 행운은 일찍 생긴 학교에 돌아가기 쉬웠다. 189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불가결한 공학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화이트칼라 기술직에 안착하기 쉬웠고, 지원자도 급증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매우 부족했던 공업 고등교육기관으로 모교를 승격시키자고 문부성 관료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했다. 반면, 공업 고등교육기관이 많아진 뒤 생겨난 후발 공업중등학교들은 도쿄직공학교 교육자와 동문들이 누린 모교 승격의 행운을 누리기가 어려웠다. 도쿄직공학교의 학교이름에서 직공이라는 낱말을 버린 1890년, 데지마 등 이 학교의 교육자들은 도쿄직공도제학교(東京職工徒弟学校, 현재 도쿄공업대학부속공업고등학교)라는 중등학교를 부속해서 직공을 교육했는데, 이 학교는 끝내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되지 못했다. 지방의 현립 중등상업학교, 공업학교, 농업학교, 그리고 수산학교들은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도쿄직공학교의 교육자들과 학생들은 당시 공업학교의 희소가치에 힘입어 모교승격운동의 결실을 본 행운아들이었으며, 다만 그들의 행운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그렇다면, 교육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육체노동의 위신을 높이고자 한다면 어떨까? 도쿄농학교를 이끌었던 요코이 도키요시는 경작지주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 학교를 1903년 도쿄고등농업학교, 1925년 도쿄농업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시키면서도 농장실습의 비중을 줄이지 않는, 당시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자로서는 매우 이채로운 행보를 보여

주었다. 사실 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드물다는 사정도 이 학교의 승격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지만, 요코이는 이 행보를 지주의 위상 상승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아마도 학교 내부기록에 근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코이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1911년까지 이 학교를 졸업한 711명 중 386명이 고향으로 돌아가 물려받은 땅을 경작했다. 요코이는 1903년 이 학교가 도쿄고등농업학교 학교 규칙에 교육의 수혜자를 “지주의 아들들”로 규정했고, 1911년에는 농장실습을 일주일에 20시간까지 늘렸다. 그러나, 결국 요코이가 1927년 사망한 뒤, 학교당국은 학생의 화이트칼라 취직을 돕는 인사과를 세우는 등 요코이의 경작지주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와 서서히 결별했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이 학교의 동문들은 요코이의 교육이념에 정면도전했다. 1935년 4월, 도쿄농업대학 동문들은 대학당국이 “이 대학을 이류대학으로 만들”어, 도쿄농업대학 졸업생들의 커리어를 제한한다고 거칠게 비판한 뒤, 도쿄제국대학 농학부를 본떠 도쿄농업대학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대학 본과를 전공별로 분류하고, 예과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뒤 예과에서만은 농장실습을 폐지하여, 구 제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외국어를 더 잘 습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⁴⁶ 결국, 더 높은 지위에 오르코자 하는 학생과 동문들의 욕망을 요코이 혼자서 억누르는 것은 불가능했던바, 도쿄농업대학의 경험 또한 농업인 내부의 위계, 즉, 정신노동자 농업전문가와 육체노동자 경작자의 위계가 공고해지는 과정의 일부였던 것이다.⁴⁷

4. 결론: 학력과 직업의 위계와 21세기 초반의 일본 사회

근대 일본의 고등교육이 팽창하는 과정은 학교와 직업의 위계가 형성되

46 「果して地主の子弟を教育するを以て目的となし得るか」, 『農大新聞』, 1935년 4월 18일, 2쪽.

47 도쿄농학교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최자명, 「근대일본의 농업교육과 사회계급의 분화: 요코이 도키요시(横井時敬)의 동경농업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참조.

는 과정이기도 했다. 신생 국가인 일본에서 학교와 직업 위계의 가장 유력한 설계자는 국가 관료들이었다. 문부성, 사법성, 공부성, 농상무성 관료들은 국가 운영에 필요로 하는 관료의 양성을 위해 일본 최초의 고등교육기관들을 세웠고, 이들 학교를 묶어 1886년 도쿄제국대학을 설립했다. 정부라는 가장 권위 있는 고용자가 채용하는 관료라는 직업과 이 존경받는 관료라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이 생겨나며, 일본의 직업세계에서 몇몇 직업은 대학 학사학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봉직하는 직업으로 떠올랐다. 1890년까지 도쿄제국대학에 설치된 6개의 단과대학, 즉, 법과, 의과, 문과, 이과, 공과, 농과대학의 졸업생들이 나아가는 각 분야의 고위관료, 중등 이상의 학교 교원, 그리고 기업체의 중간관리자는 높은 급여를 받는 고학력 정신노동자의 직업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주변에는 보다 낮은 직위에서 일하는 정신노동자로서의 고등전문학교 졸업자들과, 육체노동자로서의 중등학교 졸업자들이 포진했다. 1890년의 시점에서 직업의 우열을 가른 것은 당시 정부의 수요였고, 고등교육의 건설과정에서 설계 및 관리자인 동시에 고등교육 졸업생의 수요자라는 이중의 역할을 떠맡은 정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그 졸업생들에 유리한 교육과 노동시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과연 19세기 말 일본 정부는 과연 얼마나 공정한 교육제도의 관리자였던가? 과연 도쿄제국대학에서 가르치는 부문의 전공자가 그 외 다른 부문의 전공자보다, 그리고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보다 더 존경받고 급여를 더 많이 받는 19세기 말의 현실을 얼마나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 도쿄제국대학의 탄생으로 빚어진 학력과 직업의 위계서열은 당연히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입각해서 구축된 것이 아니었다.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의 설계 및 관리자이며 사용자였던 19세기 말 일본의 관료들은 결국 제국대학을 세우고 관청에 인재를 흡수하며 교육과 노동 시장의 위계를 만들었을 뿐, 이 위계의 정당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던 공문서는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직위에 올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학력 경쟁의 승자에 대한 찬미와 그들의 자화자찬 속에 직업의 위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의 공백은 가려졌다. 앞서 언급한 『교육의 효과

에 관한 조사』에서, 문부 관료들은 제국대학과 국립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국가관료제, 기업체, 그리고 학교에서 활약한 덕분에 일본이 “문명국”의 지위를 얻고 있다고 자랑했다.⁴⁸ 고등교육의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정당한 결실로 간주했다.⁴⁹

학교와 직업의 위계는 그 시장가치가 변하며 끊임없이 동요되었고, 문부관료들은 그 위계를 끊임없이 수정했다. 애초 도쿄제국대학에서 의사, 기술자, 농업전문가 새로운 전문직을 양성하고 이들을 도쿠가와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회 최상층부 엘리트의 지위로 끌어올리면서, 문부관료들은 직업세계의 새로운 판을 짰다. 그리고 이후에도 새로운 전문직 후보군이 도쿄제대 교육 프로그램에 진입했다. 물론 이전 시대의 경험이 직업의 위계가 고등교육과 맞물려 변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관료와 교원이 기업의 중간관리자보다 먼저, 그리고 농업 전문가가 어업 전문가보다 먼저 도쿄제대의 양성 프로그램에 편입된 것은 도쿠가와 시대의 경험을 도외시하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 상세히 논하지는 않았지만, 도쿄직공학교의 학생들이 직공이 되기를 거부하고 교장에게 교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 직공에 대한 처우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대의 경험이나 국민국가 건설의 필요성이 어떤 직업과 학교가 다른 직업과 학교들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교육과 취직시장의 윤리적 정당성을 자동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교의 승격을 통해 직업의 위계가 조정된다고 해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위계가 흔들리지는 않았다. 앞서 살폈듯이 1890년 이래 일본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도쿄고등상업학교의 졸업생들은 점원이 아니라 회사의 중간관리자로서 위상을 높여 나갔고, 독일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

48 文部省, 『教育の效果に関する調査』, 서문.

49 이 과정에 대해서는 Earl H. Kinmonth, *The Self-Made Man in Meiji Japanese Thought: From Samurai to Salary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의 2장 참조.

50 Jamyung Choi, “Consolidating the Collar Line: The Professionalization of Engineering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Modern Japan,” p. 221.

은 도쿄고등상업학교의 교수들과 동문들은 고등교육의 확대를 추진하던 전반기 일본 정부와 손잡고 자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승격은 회사의 중간관리자라는 새로운 전문직이 생겨난 덕분이지, 점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격상된 덕분은 아니었던 것 같다. 1차대전의 호황을 업고 대학 승격을 주도한 하라 내각의 각료들이 학교와 직업의 위계가 가지는 본질적인 자의성을 성찰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고등교육의 수혜자들 대부분이 학교교육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며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교육과 직업 위계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위계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학교제도를 설계한 19세기 국민국가는 아마 지구상에서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엘리트인 정부 지도자들과 고등교육의 수혜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출세하기 어려운 직업들의 존재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지는 못했다.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주도한 국민국가의 건설과 산업화의 결실을 국민들이 누리기 시작하던 20세기 후반까지 일본에서 학교와 직업의 위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1960~1970년대를 거치며 일본 사회를 규정하는 수사가 된 “충중류사회”, 즉 일본인들 모두가 중간계급이라는 믿음은, 엄존하는 학력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위계를 가릴 만큼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다.⁵¹ 그러나 세기 전환기를 거쳐 21세기 초반에 이른 현재, 비정규고용의 일반화로 육체노동의 가치가 점차 평가절하되고, 유통과 서비스의 플랫폼이 전국단위로 통합되며 육체노동자 커리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의 전망이 어두워지자,⁵² 학교와 직업의 경쟁이 생계 문

51 일본인들의 절대 다수가 중간계급에 속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상징적인 저작은 村上泰亮, 『新中間大衆の時代: 戦後日本の解剖学』, 中央公論新社, 1987; 이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은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전후일본의 격차와 불평등이라는 세 권짜리 사료집에 집성되어 있다. 盛山和夫, 『変動する階層構造: 1945~1970』, 日本図書センター, 2008; 原純輔, 『広がる中流意識 1971~1985』, 日本図書センター, 2008; 白波瀬佐和子, 『ゆれる平等神話, 1986~2000』, 日本図書センター, 2008.

52 자영업의 개업보다 폐업이 줄어드는 시점은 1985년이었다. 사토 도시키, 『불평등 사회, 일본』, 85쪽. 사토는 이 책에서 고졸 부모의 자식들이 대거 대졸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되는 전후 일본의 경험 속에서 여전히 부유한 부모의 자식들이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안착하는 불평등을 계량적 지표로 보

제와 직결되고 있다. 대학교육을 확대했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대학교육의 수혜자들의 숫자는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았다. 1960년대까지 고등교육 확대론의 주요 근거였던 활발한 개인의 계층 간 이동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제 일본 사회를 규정하던 수사였던 “충중류사회”는 이제 “격차사회”나 “학력 분단사회” 등으로 대체되었다.⁵³

이러한 상황에서 도쿄제대를 기준으로 교육과 직업의 위계를 편성하고, 시장과 재정 상황에 따라서 교육 기회를 확대해 온 일본 교육의 설계자들은 위기에 직면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까지 대학의 숫자가 늘어난 데 반해 존경받는 직업의 숫자가 한계가 있어 대학에 다니는 모두를 수용하기 어려워진다면, 기준이 되는 학교와의 동화를 통해 위상을 제고하던 다른 대학들, 그리고 기준이 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더 이상 존경받는 높은 급여의 직업인을 양성하지 못하는 학부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교와 직업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21세기 교육과 채용 시장의 흐름대로 방치한다면, 소수의 학교와 학부만을 남긴 채 다른 학교와 학부가 몰락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해 온 일본의 관료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그 교육을 수혜받은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학력이라는 자격의 새로운 분배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도쿄제대를 고등교육의 표준으로 삼아 교육과 채용시장을 활성화하며 인재를 양성해 온 일본 사회의 구성원들 앞에, 21세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과 직업의 격차를 제한하며 교육과 채용의 시장질서를 손봐야 한다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여 주었다.

53 격차사회를 논한 논저는 주7번을 참조. 학력분단사회, 즉 부모의 학력이 자식에 대물림되어, 대졸 학력이 50%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吉川徹, 『学歴分断社会』, 筑摩書房, 2009를 참조.

참고문헌

특집 | 학력사회, 교육격차 그리고 사회이동: 일본의 경험에서 묻는다

근대 일본 고등교육의 확대와 학력 위계의 형성 | 최자명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남기훈 옮김, 『격차사회』, 세움과비움, 2013(원저는 2006년 출판).

미우라 아쓰시, 이화성 옮김, 『하류사회: 새로운 계층집단의 출현』, 씨앗을뿌리는사람, 2006(원저는 2005년 출판).

사토 도시키(佐藤俊樹), 이경희 옮김, 『불평등 사회, 일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4(원저는 2000년 출판).

최자명, 「근대일본 농업교육과 사회계급의 분화: 요코이 도키요시(横井時敬)의 동경농업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2호, 2018.

부르디외, 피에르,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상·하, 새물결, 2005(원저는 1979년 출판).

「実質的に愈々認められた私立大学出の学士」, 『受験と学生』 제6卷 7号, 1923.

「帝国大学の学園」, 『東京朝日新聞』, 1899년 6월 7일

「果して地主の子弟を教育するを以て目的となし得るか」, 『農大新聞』, 1935년 4월 18일.

「一橋閣の主流: 三位一体の学園」, 『受験と学生』 25卷 5号, 1941.

天野郁夫, 『学歴の社会史』, 新潮社, 1992.

天野郁夫, 『旧制専門学校論』, 玉川大学出版部, 1993.

天野郁夫, 『大学の誕生』 上·下卷, 中央公論社, 2009.

天野郁夫, 『高等教育の時代』 上·下卷, 中央公論新社, 2013.

天野郁夫, 『新制大学の誕生』,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6.

天野郁夫, 『帝国大学: 近代日本のエリート育成装置』, 中央公論新社, 2017.

天野郁夫, 『新制大学の時代』,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9.

安藤正純, 「大学改革の志向 5」, 『東京朝日新聞』, 1943년 5월 15일.

伊藤彰浩, 『戦間期日本の高等教育』, 玉川大学出版部, 1999.

岩田弘三, 『近代日本の大学教授職』, 玉川大学出版部, 2011.

潮木守一, 『京都帝国大学の挑戦: 帝国大学史の一齣』,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部, 1984.

SMU 社員待遇調査会 編, 『諸会社事務掌程社員待遇規定集』, 社員待遇調査会, 1926.

小田勝太郎 編, 『東京諸学校学則一覧』, 英蘭堂, 1883.

河田峰郎, 『会社員給与調べ』, 東京経済社, 1925.

看護史研究会 編, 『派出所看護婦の歴史』, 勁草書房, 1983.

吉川徹, 『学歴分断社会』, 筑摩書房, 2009.

- 京都大学百年史編集委員会 編,『京都大学百年史』総説編 第1巻,京都: 京都大学後援会, 1998.
- 日下部三之介 編,『文部大臣森子爵之教育意見』,日下部三之介, 1888.
- 作道好男 編,『一橋大学百年史』,財界評論新社, 1975.
- 佐々木貴文,『近代日本の水産教育:「国境」に立つ漁業者の養成』,札幌: 北海道大学出版会, 2018.
- 渋沢栄一,「学閥論」,『竜門雑誌』, 353号, 1917.
- 白波瀬佐和子,『ゆれる平等神話, 1986~2000』,日本図書センター, 2008.
- 新堀通也,『日本の大学教授市場: 学閥の研究』,東洋館出版社, 1965.
- 水産講習所,『水産講習所一覧: 自大正二年至大正三年』,農林省水産講習所, 1914.
- 橘木俊詔,『日本の経済格差: 所得と資産から考える』,岩波書店, 1998.
- 帝国大学,『帝国大学一覧: 明治23~24年』,帝国大学, 1891.
- 帝国大学新聞社 編,『帝国大学年鑑』,帝国大学新聞社, 1934.
- 東京大学医学部附属病院看護部看護史委員会 編,『看護のあゆみ: 明治・大正・昭和を通して』,東京大学医学部附属病院看護部, 1991.
- 東京商業学校,『東京商業学校規則』,東京商業学校, 1886.
- 東京女子高等師範学校,『東京女子高等師範学校六十年史』,東京女子高等師範学校, 1934.
- 梶田隆治,『学閥: 日本を支配する赤門』,有紀書房, 1957.
- 三好信浩,『日本商業教育成立史の研究』,風間書房, 1985.
- 三好信浩,『日本商業教育発達史の研究』,風間書房, 2012.
- 三好信浩,『日本工業教育成立史の研究』,風間書房, 1979.
- 三好信浩,『日本工業教育発達史の研究』,風間書房, 2005.
- 三好信浩,『日本農業教育成立史の研究』,風間書房, 2012.
- 三好信浩,『日本農業教育発達史の研究』,風間書房, 2012.
- 村上泰亮,『新中間大衆の時代: 戦後日本の解剖学』,中央公論新社, 1987.
- 盛山和夫,『変動する階層構造: 1945~1970』,日本図書センター, 2008.
- 文部省,『教育の効果に関する調査』,文部省, 1904.
- 秦郁彦,『官僚の研究』,講談社, 1983.
- 原純輔,『広がる中流意識 1971~1985』,日本図書センター, 2008.
- 一橋学園史編纂事業委員会 編,『如水会の歩み』,如水会, 1982.
- 山本邦之助,『理想的会社員』,服部書店, 1903.
- 早稲田大学 編,『半世紀の早稲田』,早稲田大学出版部, 1932.
- Choi, Jamyung, "The Hegemony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and the Paradox of Meritocracy in Modern Jap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44(1), 2018.
- Choi, Jamyung, "Consolidating the Collar Line: The Professionalization of Engineering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Modern Japan,"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98, 2020.
- Gordon, Andrew, *The Evolution of Labor Relations in Japan: Heavy Industry, 1853~1955* Cambridg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85.
- Kinmonth, Earl H. *The Self-Made Man in Meiji Japanese Thought: From Samurai to Salary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Milner, Murray Jr., *The Illusion of Equality: The Effect of Education on Opportunity, Equality and Social Conflict*,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lisher, 1972.
- OECD, *General Report on the Conference on Future Structures of Post-Secondary Education*, Paris: OECD, 1974.
- Spaulding, Robert M., *Imperial Japan's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Trow, Martin, *Twentieth-Century Higher Education: Elite to Mass to Universal*,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0.
- Wiseman, Alexander W. & Calley Stevens Taylor, ed., *The Impact of the OECD on Education Worldwide*, Bingley, UK: Emerald Publishing, 2017.

일본의 대졸자 고용제도와 직업능력의 구성: 인물·학력·잠재능력 | 조정우

-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이데아, 2021.
- 양승훈,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동남권 지방대생의 일경험과 구직」, 『경제와 사회』 131, 2021.
- 조형근, 「능력주의의 안과 밖: 한국사회 불평등 담론의 계보 탐색을 위한 시론」, 『(역사문제연구소 연구기획팀 워크숍 자료집) 한국 근현대 능력주의의 역사와 신화』, 역사문제연구소, 2021. 8.
- 마크 그라노베터, 유홍준·정태인 옮김, 『일자리 구하기: 일자리 접촉과 직업경력 연구』, 아카넷, 2012.
- 오다가 구니오(尾高邦雄), 곽창신 옮김, 『일본인의 직업윤리』, 대한교과서, 1992.
- 오다가 구니오, 양기호 옮김, 『일본적 경영: 그 신화와 현실』, 소화, 1996.
- 오사와 마리, 정진성·장화경 옮김, 『회사인간사회의 성(性): 현대 일본을 젠더로 읽는다』, 나남출판, 1995.
- 다카하시 노부오, 정경진 옮김, 『성과주의의 허상』, 오즈컨설팅, 2007.
- 若林幸男, 『三井物産人事政策史 1876~1931年: 情報交通教育インフラと職員組織』,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07.
- 荻谷剛彦, 「大卒就職の何が問題なのか」, 荻谷剛彦·本田由紀 編, 『大卒就職の社会学: データからみる変化』, 東京大学出版会, 2010.
- 荻谷剛彦·本田由紀 編, 『大卒就職の社会学: データからみる変化』, 東京大学出版会, 2010.
- 熊沢誠, 『能力主義と企業社会』, 岩波書店, 1997.
- 水島治郎·米村千代 編, 『公正社会のビジョン: 学際的アプローチによる理論・思想・現状分析』, 明石書店, 2021.
- 竹ノ下弘久, 『仕事と不平等の社会学』, 弘文堂, 2013.
- 中村高康, 「「OB・OG訪問」とは何だったのか」, 荻谷剛彦·本田由紀 編, 『大卒就職の社会学: データからみる変化』, 東京大学出版会, 2010.
- 中村高康, 『暴走する能力主義: 教育と現代社会の病理』, 筑摩書房, 2018.
- 菅山真次, 『「就社」社会の誕生: ホワイトカラーからブルーカラーへ』,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1.

특집 | 학력사회, 교육격차 그리고 사회이동: 일본의 경험에서 묻는다

근대 일본 고등교육의 확대와 학력 위계의 형성 | 최자명

고등교육이 확대되면 사회적 유동성이 늘어나서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20세기 중반 교육사회학자들의 담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교육기관들이 갖는 사회적 위상은 학교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이 글은 승격을 통한 고등교육의 확대라는 후발국 일본의 독특한 경험에 주목하며, 대학과 대학사이의 격차 및 4년제 대학과 그보다 교격이 아라인 학교들의 격차가 어떻게 생겨나고 유지되는지를 해명한다. 19세기 말 일본 학교제도의 설계자들은 이 학교에서 양성하는 국가의 근대화를 책임질 인재들의 채용자이기도 했다. 그들은 일본 최초의 대학인 (도쿄)제국대학의 졸업자에 상당한 직업적 특권을 부여하며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분야의 관료, 기업인, 교육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후발국 일본의 직업 사회는 고등교육과 직결된 높은 급여를 받는 정신노동자의 직업들과 고등교육과 연결되지 않는 낮은 급여의 육체노동자의 직업들로 대별되게 되었다. 후발학교의 교육자와 학생들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경계,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경계, 그리고 전문학교와 대학의 경계 위에서 더 높은 교격과 직업 전망을 위해 자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키며 고등교육을 확대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위계, 대학과 전문학교, 그리고 중등학교의 위계는 무너지기보다는 유지되었다. 학교 승격은 그 교육자들과 학생들이 교격과 그와 연결된 직업의 위계를 승인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었지, 중등학교와 육체노동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다면, 지방학교, 여학교, 사립학교와 선택받지 못한 직업을 훈련시키는 학교들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과정은 전혀 아니었다. 또한, 후발 교육기관이 대학으로 승격한다고 해서 도쿄제국대학과 같은 사회적 위상을 누리지는 못했는데, 졸업생들의 네트워크, 입학생들의 성적, 교원의 질 등 여러 면에서 오래되고 인기 있는 대학을 후발대학이 따라잡기란 어려웠던 것이다. 이 과정을 살펴으로써, 이 글은 문부관료와 교육자, 학생들이 이끄는 고등교육의 확대라는 과정에서 학력의 위계가 뿌리내리고 계급장벽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해명한다.

주제어: 국가, 고등교육, 학력, 직업, 학교의 승격

일본의 대졸자 고용제도와 직업능력의 구성: 인물·학력·잠재능력 | 조정우

최근 한국에서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이슈를 넘어 정치적 의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졸 청년층의 취업은 능력과 공정의 문제가 가장 예민하게 충돌되고 있는 지점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능력주의를 상대화하기 위한 참조점으로 일본 대졸 노동시장에서 능력이 정의되는 방식을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해 일본 대졸취업제도의 역사적 변화에서 능력의 상이 구성되어 온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선발의 기준으로서 능력이 채용제도의 국면 변화에 조응하여 정의된 방식을 드

"GAKUREKI SHAKAI", EDUCATIONAL GAP AND SOCIAL MOBILITY:

INQUIRY INTO JAPAN'S EXPERIENCE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and School Hierarchy in Modern Japan

| CHOI Jamyung

Despite the audacious faith of mid-twenty-century educational sociologists that educational expansion should promote a democratic, egalitarian, and affluent society, there emerged a significant gap in the prestige of different schools, and their graduates. This article explores how a gap between privileged and modest universities, and between four-year universities and schools of lesser ranks appeared and persisted in late developing Japan. The architects of Japanese school system who envisioned to train elites entrusted with the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were also the employers of those elites as well. They gave significant professional privileges graduates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Japan's first university, distinguishing these highly educated, well paid mental workers in the state bureaucracy, business, and schools from undereducated manual workers with modest wages. Educators and students from schools established later than Tokyo Imperial University, tried to upgrade their rank to university, like Tokyo Imperial University, for students' better careers. In this process, they added another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by upgrading the rank of their alma mater, but solidified the hierarchy of mental and manual labor, and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econdary schools. Educators and students accomplished the upgrade of a school rank by approving those hierarchies and going up the ladder, not by destroying the hierarchies of school ranks and occupations. Also, educators of latecomer schools, even if they managed to upgrade their schools to the rank of university, could not be as popular as old universities such as Tokyo Imperial University, for these old universities were believed to have a strong alumni network and good teachers, and their reputations reproduced themselves. By looking at this process, I examine the ways a credential hierarchy and class barriers took shape through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led by state officials, educators and students.

• **Keywords:** State, Higher Education, Credential, Profession, Upgrade of School Rank

Institutional Composition of Vocational Abilities in Japan's Recruitment System for College Graduates | CHO Jung woo